

격려의 말씀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을

자 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정(定)과 혜(慧)를 함께 해야 하듯이, 학문의 세계에서든 혜(慧)와 행(行)을 함께한다면 그 결실 또한 풍성해 집니다. 정과 혜는 선정과 지혜를 말함이지요, 혜와 행은 학문연구와 교육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성으로 공경하고 부지런한 수행으로 그 과(果)를 중생의 무명(無明)세계에 광명으로 나투어야 하듯이, 여러 교수님들은 학문 연구에 정진하여 그 온축된 결실을 학생들에게 향기롭게 전하는 것이 각자의 사명입니다.

출가의 세계는 수행정진과 실천이 제일의 목표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처럼 상구보리 하화중생만을 위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수반합니다.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으며 나라가 있기에 교수 여러분들은 보다 다양한 현실에 부대끼며 이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 또한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문 연구와 교육 그 자체만으로도 고단한 일상인데, 거기에 더하여 부처님 법까지 열심히 수행하며 이를 실천행으로 옮기고 있으니, 그 원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사대부로서 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교는 지식화와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불교는 그러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살불교’란 호칭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오늘날은 여러분들과 같은 최고 지성들이 학계와 사회에 크게 자리잡고 부처님의 법을 선양하고 있기에, 이제 한국불교도 지성화, 현대화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수불자 여러분!

많은 불자들은 여러분들을 문수(文殊)와 보현(普賢)에 비유합니다. 문수는 지혜의 대명사요, 보현은 행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은 불법의 신행과 학문연구를 통하여 문수의 지혜를 닦고, 교육과 더불어 불법을 홍포함으로써 보현의 행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진속(眞俗)이 일여(一如)하고, 지행(知行)이 일체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의 진산(鎭山) 북한산에 문수봉과 보현봉이 서로 마주 보고 나란히 붙어 있음은 결코 혜와 행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뜻 깊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의 십대원력을 요약하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고 살생을 업으로 하거나

재물에 욕심이 많은 자들까지 모든 중생들에 보리심을 내게 하며 자비회사와 허공같이 넓은 마음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보리를 깨닫고 정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보현보살의 십대원력을 요약하면, 모든 부처님을 예배 공경하고 스스로 업장(業障)을 참회 하며 항상 중생들에게 순응(恒順衆生)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에게 보리심을 깨닫게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업장을 참회하게 하며, 서로 항상 온화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문수와 보현의 지혜이자 행원입니다.

교수불자회는 이제 성년을 훨씬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 나기를 축원하며, 문수와 보현의 지와 행을 실천하여 중생을 무명 속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25주년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